

지금은 뭐 해!?

—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그 후 이야기



사이토 노리요

▶ 제2회 참가

작년에 대학을 중퇴하고 한국으로 건너가 K-POP 그룹의 백댄서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참가한 DDD가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팀에서 댄스 경험자는 저와 한국 친구 한 명뿐이었습니다. 둘이서 여러 노래의 댄스를 보고 모두 같이 출 수 있는 노래를 생각하거나 율동을 바꾸거나 했습니다. 서로 상대의 언어를 몰라서 몸동작 손동작으로 필사적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후에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한국에 몇 번이나 가서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이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댄서가 되고 싶다는 꿈도 점점 현실이 되었습니다. 꿈이란 되고 싶다고 주변에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윤주

▶ 제5회에 참가

저는 지금 메이지대학 국제일본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관광 가이드가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DDD에 참가했을 때 룸메이트와 앞으로의 대학 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유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학 준비는 힘들었지만 DDD 친구 중에 같은 대학에 지원하려는 일본 친구가 있어서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며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대학에서 여러 국적의 학생들과 만나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일본과의 국제 관계에까지 시야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일본을 제대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댄스·댄스·댄스2018

2018년도에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에서 20명, 한국에서 20명 총 40명이 모여서 6개 팀으로 나뉘어 댄스를 즐기며 교류했습니다.

2018년 참가자의 말

우리 방에서만 통하는 말이 생겼다. 6명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 가며 이야기하는데 연우가 “깜짝이야”는 일본어로 뭐라고 해?”라고 물었다.

“빚쿠리시타”라고 했더니 “미꾸라지?”라고 잘못 들었다. 미꾸라지는 ‘장어’다. 하지만 그때 이후 놀라는 일이 있으면 모두 “미꾸라지~”라고 말하게 되었다.

2018년 담당자의 말

올해의 DDD는 김희수 기념 수림아트센터홀에서 열렸다. “뭐야, 여기에서 한다고!”라며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무대를 준비했다. 회장에 오신 프로그램 OG·OB로부터 “와, 대단한데!”, “뭐야, 너무 해~!” 등의 말을 들었을 때 무대 한국석에서 만족스럽게 웃고 있던 게 바로 접니다.

다음 회 2019년 봄 모집 예정!!

한국어를 몰라도 OK!
댄스는 연습하면 된다!!

모집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서울에서 댄스·댄스·댄스

17

있는다

서울에서
댄스·댄스·댄스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한국과 일본의 중고등학생이 한국 서울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K-POP 댄스를 테마로 교류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 희망자가 늘어나, 2017년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모집 인원의 10배가 넘는 응모가 있었습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마음이
된다
댄스
댄스
댄스
로



2017년도로 6번째를 맞은 「서울에서 댄스·댄스·댄스」.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의 중고생 20명과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의 중고생 19명이 한국 서울에서 5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6개의 한일 혼성팀으로 나누어 방송 댄스 연습에 몰두합니다.

각 팀별로 댄스곡을 직접 정해서 발표회에 대비해 연습을 하지만 팀원 중에는 춤을 잘 추는 학생도, 못 추는 학생도 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자기 생각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해서 험악한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서로의 개성의 차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등을 알게 되지만 어떻게든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발표회를 마치고 작성한 설문의 답을 보면 참가자 자신이 세운 목표 달성률은 평균 80퍼센트 정도입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을 충동원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섰습니다.



2017년도 사업 데이터

서울에서 댄스·댄스·댄스 2017

기간: 8/6(일)~8/11(금), 장소: 도쿄(사전 연수), 한국 서울, 주최: 수림문화재단, TJF, 실시: 수림외국어전문학교,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TJF, 협력: 고등학교한국조선어교육네트워크, 수송 협력: ANA, 후원: 국제교류기금 서울일본문화센터, 인솔 교사: 6명(간호사 포함), 참가자: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중고등생 20명,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중고등생 19명



마오 (고2)

목표 달성도



80%

‘달라졌다’ ‘성장했다’고 느낀 점

시야가 넓어졌다. 같은 중고생이라도 나와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느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다.

앞으로의

나를 위한 3가지 약속

- ①웃는 얼굴을 소중히 하기
- ②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 ③더 많은 세상을 보기



“일본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게 대단한 것 같아.”란 말을 듣고 문화의 차이를 느꼈다.



어라?하고 느낀 점

한국 친구가 울동이 잘 안되면 바로 포기했다.



민서 (고3)

목표 달성도



80%

‘달라졌다’ ‘성장했다’고 느낀 점

일본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의

나를 위한 3가지 약속

- ①적극적인 사람이 되기
- ②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하기
- ③솔직해지기



표정이 안 좋으면 모두 신경 쓴다는 것을 알고 밝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했다.



개운하지 않았던 점

일본 친구들과 잘 안 맞을 때마다 “괜찮아?”라는 말을 들었다.



미유키 (중3)

목표 달성도



60%

‘달라졌다’ ‘성장했다’고 느낀 점

처음에는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못했지만 댄스 연습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의

나를 위한 3가지 약속

- ①자기 생각을 잘 전하기
- ②자신감을 가지기
- ③모르면서 아는 척 안 하기!



한국 친구 중에 일본어를 잘 아는 친구에게 물었다.



몰랐던 것

한국어로 말하려고 했지만 한국어를 몰랐다.



유가 (고2)

목표 달성도



70%

‘달라졌다’ ‘성장했다’고 느낀 점

댄스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서 성장했다고 느꼈다. 주변 친구들과 협력하는 방법이나 춤을 잘 못 추는 친구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졌다.

앞으로의

나를 위한 3가지 약속

- ①나부터 솔선해서 행동하기
- ②밝게 웃는 얼굴로 대하기
- ③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몰랐던 것

한국어를 모르겠다.



일본어를 간단하게 말해 보거나 영어나 제스처, 번역기를 사용해서 대화했다.



몰랐던 것

한국어를 모르겠다.



일본어를 간단하게 말해 보거나 영어나 제스처, 번역기를 사용해서 대화했다.

